

다음으로는 강화갯벌센터의 장동용 사무국장님의 발표이다.

장동용: 강화갯벌센터는 1999년 환경운동연합과 주한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습지보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의 지자체인 인천시, 강화군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 세미나, 심포지엄, 영국, 독일의 갯벌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시설 관리는 강화군이 운영은 99년부터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최대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상주 활동가들의 근무 상황의 열악한 면을 지역주민의 자원활동가 양성으로 수급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순환근무체제로 15명 정도가 갯벌센터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이런 성격의 특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전체적으로 초기의 운영부터 민과 관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점차 강화군과의 관계도 처음 보다는 많이 진일보된 협력관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모델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워크숍을 통해 살펴본 환경교육에서의 민관협력의 결론은 이미 도출되어져 있다고 느껴진다. 그 어떤 분야의 교육보다도 환경의 교육적 효과는 특히 민관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지고 (갯벌센터) 도시 전체에서 진행되는 교육 시스템(일본 니시노미야시)의 사례를 통해 더욱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리 : 강운화 님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luna@kfem.or.kr)

[Session2] [국내 지역별 사례발표] 환경교육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For the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
_ 지역별 사례발표 및 민관협력방안 토론



Part I . 거점형 사례

- [사례1] 광덕산환경교육센터_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 차수철 ... 83쪽
- [사례2] 남이섬환경학교_ (사)환경교육센터 · 민여경 ... 97쪽
- [사례3] 도봉환경교실_ (사)환경교육센터 · 김동현 ... 108쪽
- [사례4] 여수환경교육센터 및 어린이도서관_ 여수환경연합 · 강홍순 ... 113쪽

Part II . 프로그램형 사례


- [사례5] 충북환경교육센터_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김경중 ... 120쪽
- [사례6] 제주환경교육센터_ 제주환경운동연합 · 양수남 ... 125쪽
- [사례7] 대전환경교육센터_ 대전환경운동연합 · 고은아 ... 138쪽
- [사례8] (사)환경교육센터_ (사)환경교육센터 · 장미정 ... 144쪽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차수철_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민관협력에 기초한 “자연-생명-공생-평화”의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광덕산생태교육센터건립추진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 연합

나에게 설명하면... 나는 잊어버릴 것이다.

나에게 직접 해 보게 하면... 나는 기억할 것이다.

나와 관계 지어 주면... 나는 이해할 것이다.

좋은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관계맺기?

환경교육센터 정의

“사람, 시설,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교육/양성, 연구/개발, 네트워크의 3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 시설”

네덜란드: 해안사구 환경교육센터



일본: 미야코 에코로지 센터



- 건물 자체의 친환경성이 돋보여 환경교육소재가 되고 있는 센터 - 태양열 이용과 우수의 활용, 옥상 정원 등
-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공간의 활용과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전시물들의 색상, 디자인 등으로 생활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건립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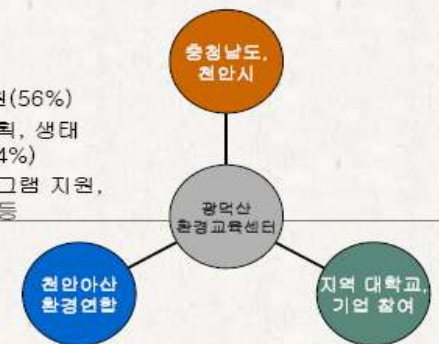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추진 배경

- 관계맺기를 위한 전문 환경교육장 마련 과제가 지역 과제 등장
- 전문화, 일상화, 지속성 있는 환경교육 지역 전문 기관 설립 계획
- 이에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남서울대학교 친환경건축클리닉센터,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목원대학교 생명학부 등이 참여해 예산, 프로그램, 친환경건축 설계, 향후 운영계획안 등을 마련하고 2006년 11월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를 착공함

추진 주체

- 충청남도, 천안시 - 예산지원(56%)
- 천안아산환경연합- 총괄 기획, 생태안내자 양성, 자부담 예산(44%)
- 대학, 기업- 예산, 교육프로그램 지원, 광덕산 주변 생태자원 조사 등



예산 계획

예산 주체	총 예산	재정 소요 계획		
		건축비	교육기자재	프로그램 개발
총계	16억원	13억원	2억원	1억원
충청남도	4.5억원	4.5억원	-	-
천안시	4.5억원	4.5억원	-	-
천안아산 환경연합	7억원	4억원	2억원	1억원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건축 개요

구 분	내용	구분	내용
공 사 명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신축공사		
대지위치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537번지		
사업기간	2006. 10~2007. 12	대지면적	481평
건축면적	115평	건축면적	115평
연 면 적	217평	건 폐 율	26.64%
용 적 율	32.91%	건축물수	1동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법정 주차	1대
건 축 비	총 16억원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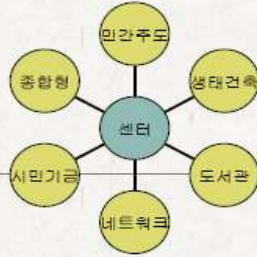
00.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전문기관 설립 제기됨
03.	'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 Green Concert'
03.	기본 설계(남서울대 친환경건축 CLINIC센터)
04.	건립추진위원회 발족과 후원의 밤
04.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토자매입
06	착공
07	풀꽃도서관 건립음악회 개최
08	2008년 8월 준공, 11월 개관 예정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비전

- 1) 가 치 : 자연에서 배우고 삶을 디자인하는 곳
- 2) 주 제 : 광덕산 생태자원과 건축 요소
- 3) 활 용 : 자연학교(숲체험환경교육)
지구환경학교(도시환경문제 교육)
생태계 보전 및 활용
(생태탐방로 개설/시민생태모니터링)
환경문제와 교육 관련 연구,조사
충남 환경교육네트워크 허브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가치

- 전국 최초 민간단체 주관 건립사업
- 친환경 생태 건축 설계
- 생태 전문 풀꽃도서관으로 활용
- 민-관-전문가 네트워크 참여 사업
- 교육, 연구, 네트워크 등 종합형센터
- 시민, 기업 참여에 의한 시민 기금



주요 방문자 및 이용자

구분(연간)	대상	내용	이용자(명)
이용시장	1차시장 (단체,개인)	체험환경교육, 전시교육	8,000
	2차시장 (가족)	휴양, 교육	500
	3차시장 (엘티,휴양)	대학생 엘티 등 시설 이용	500
	4차시장 (기업연수)	기업 팀별 연수	400
참여시장	1차시장 (지도자양성)	생태안내자 지도과정 및 워크샵	600
	2차시장 (도서관 이용자)	풀꽃도서관 이용자	4,800 (48주*100)
	3차시장 (노동자원봉사)	자원봉사, 일반방문	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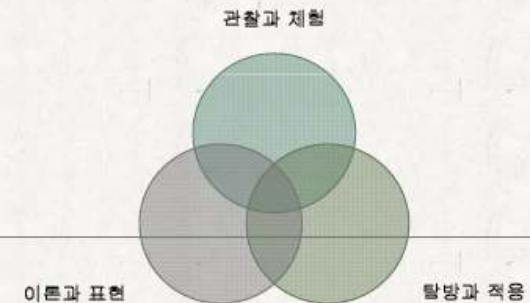
수용 인원 및 예상 이용자

- 숙박 40명, 동시 교육 80명까지 수용 가능(도서관 이용자는 별도)
- 수용 인원 및 방문 추정 수요(연간)
-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수도권, 천안 인근 대전, 공주, 아산, 청주권역까지 교육 수요 창출

구분	수용가능인원 (명)	시설이용률 (%)	추정수요(명)
수련시즌 (4개월)	12,500	30	4,950
방학시즌 (2개월)	6,000	50	4,200
기타시즌 (6개월)	18,000	20	6,000
계	36,500	(평균) 28	15,150



프로그램 유형과 관계



주요 교육 프로그램

- 광덕산 숲 체험(해설) 프로그램
- 생태건축(흙, 에너지, 수질정화, 옥상생태 등) 프로그램
- 지역 역사문화 프로그램
- 기후변화, 쓰레기 등 도시환경 프로그램
- 가족과 기업(팀) 대상 프로그램 개발(자연음식 만들기과 먹기, 생태적 창의성 훈련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운영 자원 계획

- 교육 수요자 교육참가비(30%)
- 풀꽃도서관 이용 등 후원회비(10%)
- 기업 등 지역 후원행사(10%)
- 시, 도 저소득, 에코세라피 위탁(20%)
- 환경물품 판매(5%)
- 시, 도 운영보조금(15-20%)
- 환경교육 연구프로젝트 등(10%)



● 위치도



● 현황도



전안 환경교육센터 신축공사

태양광시스템(전기)

***태양광발전의 특징**

- 무한에너지:연료의 불필요
- 정밀에너지:대기오염 및 폐기물이 없음
- 다양한 설치방법:태양광이 있는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
- 유지관리비용의 최소화:태양전지수명:20년,온천 및 유지관리비:매년 비용 최소화
- 미래형에너지:천연라디오파형에너지로 인식,기술보급 및 부가발전




지열시스템(냉난방및온수)

***특징**

- 자연 친화적 에너지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역류/계통 일정한 온도유지
- 외관이 깨끗함(냉각탑,실외기,보일러 불필요)





자연환경시스템

자연정화하수처리장

***특징**

- 80년이상 사용 가능한 공법
- 일대지역서 자연정화로 하수를 산화
- 지진공명에 기계시설이 없으므로 안전공급 불필요
- 고장이 없으며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음



육상녹화

***특징**

- 도시열섬효과 완화
- 경관향상을 통한 심미안정효과
- 단열효과
- 방음효과




자연환경시스템





환경교육센터 건축 전경(공정율 40%-'07년 12월)



생태계의 보고 광덕산
 “자연-생명-공생-평화”의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됩니다.

남이섬 환경학교_ Nami-Ecoschool

민여경, 곽태성_ (사)환경교육센터 남이섬환경학교

생태적으로 상상하라! <남이섬 환경학교> 문을 열다!

남이섬의 가을 아침은 낮게 깔린 물안개 사이로 분주하게 하루를 준비하는 청설모들의 천국이다. 겨울살이를 준비하는지 하루 종일 바쁘게 나무를 오르내린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은 메인로드의 청설모들은 동작이 빠르다. 한적한 곳의 청설모들은 조금은 느긋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 피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동화 속 서울쥐와 시골쥐와 비교하기도 한다. 남이섬 서쪽 강가, 한적한 곳에 얼마 전부터 아담하고 소박한 나무로 뒤덮인 작은 집이 들어섰다. 이곳이 바로 <남이섬 환경학교>이다.



환경운동연합의 교육전문기관으로서 6년을 맞이하는 (사)환경교육센터는 2006년 9월 23일 남이섬에 작은 환경학교의 문을 열었다.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각종 교육센터가 여기저기에서 계획되고 있다. 공주대 이재영 교수에 의하면 각 시도에서 계획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자그마치 1조원에 달한다. 환경교육센터의 발의·논의·예산마련·건축·개소·운영에 이르는 일련의 준비과정에 최소 몇 년의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고자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는 <남이섬 환경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남이섬 환경학교>는 대규모 환경교육

센터와는 차별화된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남이섬 내에 매점으로 사용되었던 3평 남짓한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학교의 교무실 겸 방문자 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비록 학교 건물은 작지만 남이섬 전체를 환경교재이자 교구로 그리고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兒:我)·자(自) 캠페인의 시작, 남이섬 환경학교

아자캠페인은 ‘아이(兒)들을 자연(自然)으로 · Send Kids to Nature’, ‘나(我) 그리고 자연(自然) · Go to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을 주요 모토로 자연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을 자연으로 보내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상상력-다양성-공평-보살핌-치유-공생의 가치를 나누고자하는 환경교육 캠페인이다.

<남이섬 환경학교>는 환경교육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아자캠페인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현의 첫 걸음인 셈이다. 아자캠페인은 <남이섬 환경학교>를 거점으로 진행되며, <남이섬 환경학교>의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제2, 제3의 <환경학교>를 발굴, 전파할 계획에 있다.

<남이섬 환경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남이섬 환경학교>의 설립취지를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실 안에서의 이론교육과 현장을 지향하는 생태체험교육에 편중되어 왔다면, <남이섬 환경학교>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풍부한 경험과 체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의 영역과 주제를 세분화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회성에 그쳤던 환경교육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으로 만들고자 한다.

<남이섬 환경학교>는 환경교육의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에서부터 환경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과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자연에서 소외된 도시인 등을 아우르는 환경교육의 공평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이 일부의 식 있는 중상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우려를 넘어, 환경교육의 주요 대상에서 소외된 자연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공평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남이섬 환경학교>의 주요한 계획이다.

또한 <남이섬 환경학교>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

에서 국제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내용을 풍부히 하고 환경교육의 국제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남이섬 환경학교>의 교육철학은 상상력-다양성-공평-보살핌-치유-공생 등 여섯 가지의 주요 가치를 들 수 있다.

- 상상력(想像力Imagination)_ 현대 물질문명에 마비된 상상력을 자연 안에서 되찾기
- 다양성(多樣性Diversity)_ 획일화균일화를 넘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자연의 다양성의 세계로
- 공평(公評Equity)_ 빈부, 성별, 나이, 인종, 종교를 넘어...
- 보살핌(Hospitality)_ 자연, 나, 우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
- 치유(治癒Cure)_ 태초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의 회귀 그리고 자연 안에서의 치유
- 공생(共生Conviviality)_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남이섬 환경학교>의 교육목표는 설립취지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다.

- 작은 학교(Small is beautiful!)_ 환경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작은 학교이다. 소박하지만 생태적 상상력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는, 작지만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넓은 학교이다. 풀 한 포기, 작은 생명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 자연의 지혜 배우기_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의 거침없는 자유,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사랑, 50억년을 한결같이 고루 비추는 태양의 공평! <환경학교>는 자연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하는 장이고자 한다.
- 상상력 나누기_ 파괴된 자연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태적 상상력,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고자 한다.
- 머리, 가슴, 손의 조화_ 머리(이해), 가슴(생태적 감수성), 손(체험)의 조화로움을 통해 인간적인 만남의 공간이고자 한다.
- 몸과 마음의 보살핌_ 건강한 먹을거리를 이야기하고,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생태적 교감의 장이고자 한다.

· 국제이해_ 너, 나, 우리 그리고 세계를 향한 시선. 환경, 평화, 인권,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국제적 인식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남이섬 환경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남이섬 환경학교>의 환경교육은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생태예술(Green Art)'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물, 공기, 흙, 에너지, 지구 등 5가지 주제교육과 남이섬의 자연-재활용-생태예술이 조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_ 환경교육센터의 6년간의 환경교육 경험과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남이섬 내의 환경적 자원을 활용하여 <남이섬 환경학교>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 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_ 로하스의 개념은 개인적인 웰빙(참살이)의 의미를 넘어 건강, 환경, 사회정의,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를 두고, 사회적 책임과 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남이섬 환경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진정한 로하스의 개념을 우리의 삶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다.
- 생태예술(Green Art)_ 생태예술의 개념은 <남이섬 환경학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로 남이섬의 자연물, 사용 후 버려진 자원을 새롭게 구성하여(Redesign)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생태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버려진 캔은 의자가 되기도 하고, 멋진 예술품이 되기도 한다. 물건을 담았던 나무상자는 예쁜 쟁반이 되고, 종이박스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바꾼다.

출발선에 선 남이섬 환경학교

현재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꿈을...

그 꿈의 토대는 남이섬 환경학교이며, 성별과 나이, 국경을 넘어서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 꿈을 함께 나누어 나갈 것이다.

남이섬 환경학교는 남이섬이라는 작은 섬의 희망인 동시에, 환경교육센터의, 그리고 더 나아가 (욕심을 낸다면) 사회 환경교육의 새로운 희망이길 간절히 바란다.

1. 사진으로 본 남이섬환경학교

사진 1. 남이섬 환경학교 모습



사진2. 9월 23일 남이섬 환경학교 오픈스쿨 행사



사진 3. 재활용 작품들 (왼쪽부터 재활용 캔으로 만든 의자와 종이방석, 두꺼비집으로 만든 꽃잎받침)



2. 남이섬 환경학교 교육프로그램 예시

[Program 1] 1일 체험 프로그램

남이섬을 방문하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일반, 노인은 물론 관광객, 가족, 단체 등을 대상으로 1시간정도 소요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재활용+환경교육+로하스의 개념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 사례 1> 1일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상
재활용 유리공예	수거되지 않는 공병을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병을 컵 모양으로 가공한 후 고화도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후, 전기 가마에 소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유리용기를 만드는 재활용 예술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 노년층
천연 허브비누	코코넛유와 팜유로 만든 천연비누베이스에 천연색소, 허브, 에센셜오일 등 천연재료로 넣어 나만의 비누를 만드는 로하스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 노년층
재활용 나무액자공예	나무를 가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칩으로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받침대, 나무액자를 만드는 재활용예술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 노년층
나무 오브제	나무를 가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칩을 이용하여 30cm×30cm 크기의 캔버스를 꾸미는 프로그램으로 체험 후 집에 걸면 멋진 재활용 예술작품이 된다.	미취학아동 ~ 노년층
숲속모형만들기	숲속 동식물들을 가지치기한 폐목을 이용하여 직접 톱으로 자르고 재료를 다듬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가족
타일꾸미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타일에 도자기안료로 그림을 그려 전기 가마에 구워내는 재활용예술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 노년층
남이섬 생태벨트 탐방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이섬 곳곳의 생태적인 건축물과 공간을 안내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탐방하는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 노년층
유기농밥상체험	건강한 먹을거리 체험프로그램으로 환경운동연합의 에코생협에서 운영하는 '에코밥상' 에서 정성스럽	미취학아동 ~ 노년층

	게 준비한 유기농재료로 만든 음식으로 환경학교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주문된 메뉴로 준비된다.	
에코캠프	몽골식 전통가옥인 '게르' 에서 숙박과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프로그램.	가족 및 단체
1일 환경학교	생태벨트탐방, 유기농밥상체험, 재활용 공예체험이 결합된 1일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단체
환경캠프	지구온난화, 재활용, 물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테마로 한 1박 2일, 2박 3일 캠프를 기획하는 위탁 프로그램.	학교 및 단체

[Program 2] 1일 체험 프로그램

생태벨트 탐방(에코투어) + 재활용 공예체험 + 유기농밥상체험 등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단체의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요청에 따라 지구온난화, 물, 재활용, 숲 등 특정한 환경이슈를 테마로 기획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사례 2> 남이섬 환경학교 1일 환경학교

	프로그램 및 일정	비고
8:00-10:00	남이섬으로 이동 (차내 활동: 모둠 나누기 및 자기소개하기)	
10:00-10:30	남이섬환경학교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10:30-11:30	[P1-강의] 영화로 만나는 기후변화 이야기	
11:30-1:00	[P2] 유기농밥상 체험 [P3]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_태양열조리기로 간편 요리 만들기	계란후라이, 유기농소세지 or 부침개
1:00-2:00	[P4] 지구온난화체험	
2:00-4:00	[P5] 숲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체험, 자연놀이 [P6] 재활용 나무공예 - 나무받침대 만들기	
4:00-4:30	휴식 및 간식	
4:30-5:30	[P7] 모둠별 공동작품 만들기 _지구온난화를 막는 지혜 10가지	
5:30-6:00	'희망과 결심 나누기' 모둠별 평가하기	
6:00-8:00	저녁식사 후 서울로 출발!	

[Program 3] 환경캠프

환경캠프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겨울 방학에 운영된다. 기간은 1박2일, 2박3일, 3박4일 등 다양하며, 남이섬 환경학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거나 기업, 단체의 위탁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 물, 재활용, 숲 등 특정한 환경이슈를 테마로 기획하여 진행된다.

<프로그램 사례 3> 남이섬 환경학교 여름환경캠프 프로그램 사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7:00-8:30		아침명상체험	숲산책
8:30-9:30		아침식사	아침식사
9:30-11:00		[Program 6] 남이섬 청정지역을 찾아라! COD테스트, pH테스트	[Program 12] 천연허브비누
11:00-12:00	남이섬 도착, 방배정, 짐풀기	[Program 7] 태양열조리기로 유기농밥상 만들기	[Program 13] 사랑의 베품시장
12:00-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00-2:00	입교식, 자기소개 [Program 1] 나무이름표 만들기	[Program 8] 남이섬 물놀이	남이섬환경학교 퇴교식 캠핑평가
2:00-3:30	[Program 2] 남이섬 생태벨트 탐방		
3:30-4:00	휴식 및 간식	휴식 및 간식	
4:00-5:00	[Program 3] 환경과 영화가 만나면!	[Program 9] 스핀지퀴즈 물을 알아!	
5:00-6:00		[Program 10] 재활용 나무공예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8:00	[Program 4] 재활용 유리공예	[Program 11] 환경과 지구를 살리는 모듬별 공동창작 작품 만들기	
8:00-9:00	[Program 5] 밤숲산책		
9:00-10:00	별자리관찰하기 /모듬별 소감나누기		
10:00-11:00	씻고 잠자리들기	씻고 잠자리들기	

3. 남이섬 환경학교의 민관협력 가능성과 한계

남이섬 환경학교는 지난 일 년 동안 일일체험프로그램, 교육캠페인, 캠프, 지도자 워크숍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교육내용을 다듬어 왔으며 환경교육을 받기 어려운 계층-자연소외계층 혹은 자연기대계층-을 위한 환경교육을 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관협력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민관협력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민(시민, 시민사회단체)과 관(지방자치단체)이 협력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지역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어떤 지역이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이슈나 현안이 있고, 지역현실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역을 슬기롭게 꾸려나가기 위해 각 단위-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사회단체는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놓치는 문제나 현안을 시민들을 대표하여 제시하고 시민들을 조직하며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단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망을 형성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정력과 정책을 통해 시민단체나 시민조직의 재정과 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조례나 지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내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윤추구 활동이나 사회 공헌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지역현안에 공헌하기 위한 이윤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남이섬 환경학교가 민관협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앞서 말했듯이 남이섬환경학교는 환경교육을 통해서 남이섬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길이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란 걸 알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남이섬은 지역인가? 남이섬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하는 내륙섬으로 관광지다. 지리적으로 북한강을 따라 내려가면 청평, 대성리, 마석이 있고, 북한강을 30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강원도 춘천이 있다. 2000년도 이후 연간 1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지로서 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남이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부이다. 엄밀히 말하면 지역이 아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면 가평, 청평, 대성리, 마석, 춘천이 있다.

여기서 남이섬 환경학교가 민관협력에 있어 발휘할 수 있는 한계와 가능성이 명백해진다. 먼저 한계를 말하자면 남이섬은 하루 사이 사람들이 몰려왔다 빠져나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시민이라 할 수 없고 그들을 조직할 수 없다. 단지, 체험 프로그램, 전시,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조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관협력을 위해 남이섬이 나아갈 방향은 남이섬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강을 건너야

한다. 가평, 청평, 마석, 춘천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시민들을 남이섬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또한 가평군청, 춘천시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지역 내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남이섬환경학교는 (주)남이섬(기업)의 협력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남이섬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고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평군과 춘천시 시민, 다른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주)남이섬 등 각각 주체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끄집어내고 남이섬환경학교를 통해 네트워크 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남이섬환경학교는 남이섬을 막고 있는 북한강을 건널 수 있을까?

민관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도봉환경교실

김동현_ (사)환경교육센터 도봉환경교실 실장

◎ 도봉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도봉환경교실은 지자체와 함께 민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3년간 도봉환경교실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구나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민간협력에 대한 자세 등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리를 자주 이동하시어 연속성이 부족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에 따라서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일회적인 성과위주로 빠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은 아직 우리나라가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에 대해서 만들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환경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목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분히 피상적으로 환경교육을 논하거나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과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에서 진행되는 지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재미있는가? 또는 인기가 좋은 가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좀 더 큰 시설과 장소를 필요로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게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집중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경쟁적으로 크고 좋은 시설을 짓기보다는 작은 공간이라도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민관 파트너십에서 있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나 기업이 제도적으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는 보통 서너 개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어디를 가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환경교육센터도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복지관같이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 또는 시별로 한 개 이상의 작

은 환경교육시설이나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연계된 시설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나오고 궁극적인 환경교육의 목적인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확산을 통한 환경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도봉환경교실 소개

1. 설립목적

지역단위에서 소규모로 지역자원(환경자원,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환경교육을 통한 친환경적인 인식의 고취와 생활 속 실천을 목적으로 함

2. 설립배경 및 연혁

2002년 도봉구에 환경운동연합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에 녹색 후보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 시키게 되었다. 2명의 녹색 후보는 당선 후 활용도가 낮은 방학3동 발바닥공원에 있는 늦봄갤러리를 주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 처음 도봉환경교실은 환경교육센터와 구의원의 주도로 기초 프로그램 및 교육봉사자 육성을 하고 2003년 4월 구청 직영의 도봉환경교실을 개관하였다.

- 2000년 방학천변 무허가관자촌 철거 후 공원조성
- 2002년 발바닥공원 조성(늦봄갤러리 준공)
- 2003년 4월 30일 도봉환경교실 개소(늦봄갤러리 용도변경)
- 2003년 4월~2004년 7월 30일까지 도봉구청 직접운영
- 2004년 8월 1일 (사)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
- 2007년 8월 1일 (사)환경교육센터에서 재위탁 운영 중

3. 운영 및 재정

- 1) 관리 및 운영 주체
- 도봉환경교실의 관리 및 운영주체 : (사)환경교육센터와 도봉구청
- 도봉환경교실의 운영방식

- 도봉구청과 (사)환경교육센터의 협력/파트너십에 의한 운영.
- 도봉구는 구 예산 편성 시 도봉환경교실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편성된 예산을 환경교육센터에서 활용하여 도봉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2) 도봉환경교실의 목표 및 비전

- ① 도봉구민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환경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
- ② 도봉구만의 환경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속의 환경교육센터로의 위상을 확립
- ③ 도봉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환경적인 삶에 기여

· 도봉환경교실의 비전

도봉환경교실은 건물 뿐 아니라 그 주변 공원을 포함한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와 사람과의 교류와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도봉구의 다양한 환경자원을 이용하여 하천탐사, 철새탐조, 숲체험, 습지교육, 에너지교육 등을 교육하고자 함. 특히 자연해설단을 활용한 지도식(Guided)과 자기학습식(Self-Guided) 학습장을 마련함으로써 해서 환경친화적인 환경교육센터의 개념을 지닌다.

- ① 도봉구 환경 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도심 속 환경 프로그램 확립
- ③ 도봉환경교실 시설 이용
 - 연간 평균 시설이용객 : 20,000 명
 - 연간 교육인원 : 12,000명
 - 연간 자원봉사 인원 : 1,000명

3) 도봉환경교실의 민·관 협력 주요평가 사항

· 긍정적인 부분

- 지자체와 민간단체간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
- 작은 공간과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심형의 환경교육센터 모델링에 기여
- 도심 속 다양한 체험 공간과 장이 형성되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됨

· 부정적인 부분

- 지자체 및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
- 관련공무원들의 잦은 이동 및 지자체장의 생각(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프로그램의 운영 및 예산의 활용도가 지자체에 의해 제한 됨.

4) 운영

- (사)환경교육센터에서 위탁운영
- 실무자 2인외 자원봉사자(자연해설단)로 운영
-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파트너십에 의한 운영사례
(운영재원은 지자체 부담하고 운영은 시민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이용시설 및 이용방법

1) 이용 가능 시설물

- 시청각교실과 열람실로 운영
- 도서열람(도감, 어린이과학도서 등)
- 사진 및 생활용품 등 전시
- 환경자료 열람
- 시청각 교재 시청 등

2) 이용 가능 시간

-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
- 화요일~일요일 프로그램 진행
- 이용시간 09:00~18:00

3)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매일 말일 경에 인터넷 접수 및 전화접수를 통해 교육생 모집
- 계절별 프로그램(벚꽃한마당, 하천탐사, 갯벌체험, 철새탐조, 전통놀이학교 등)
 - 연령별 프로그램(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
 - 대상별 프로그램(가족단위,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분)
 - 정기, 비정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운영

4) 자연해설단 운영

- 도봉환경교실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자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자연해설단 교육 및 운영
- 자연해설단 교육생 모집 교육, 자연해설 기초 교육, 심화교육 등 진행

5. 도봉환경교실의 평가

1)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운영

- 지역의 예산과 인적자원, 환경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
-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대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자원 이용의 확대
- 전반적으로 자원의 활용과 분배는 원활함.

2) 환경교육센터와의 교류와 협력

- 전반적으로 교류 및 협력의 부족
- 프로그램 및 운영상의 협력과 교류가 요구됨

3) 재정적인 평가

- 환경교육센터에 재정적인 도움은 별로 되지 못함.
-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보다는 다양한 파생적인 효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홍보적인 효과 등 기타 부분 검토 필요

여수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도서관 건립사례

강흥순_ 여수환경운동연합 처장

1. 추진배경

- 2003년 2월 여수 산단 삼남석유화학에서 병커C유 1,000L을 바다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사고기업의 공개사과, 환경복원, 재발방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삼남석유화학은 환경복원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 기금으로 여수시에 7억원을 기탁하였다.
- 삼남석유화학은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어린이)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또 환경도서관이라는 의미를 담은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2. 건립 목적

- 대단위 화학 산업단지가 소재한 여수시는 환경안전사고 발생 등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테마로 한 환경도서관을 건립한다.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분한 환경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여수환경도서관을 건립한다.

3. 경과

- 2003년 7월 삼남석유화학 어린이환경도서관 건립기금 7억원 여수시 기탁
- 2003년 12월 여수시 환경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 2004년 4월 국비(660백만원) 지원 확정
- 2005년 5월 여수시, 시의원, 시민단체 입지 및 공간배치 등에 관한 간담회
- 2005년 7월 환경운동연합 주최 환경도서관 건립에 관한 토론회
- 2005년 7월 설계 공모

- 200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006년 5월 국내 도서관 및 환경교육시설 견학
- 2006년 12월 도서관 건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
- 2007년 4월 국내 환경교육시설 견학
- 2007년 8월 도서관 임시개관
- 2007년 11월 환경교육관 설치계획 설명회 및 간담회
- 2007년 12월 옥상 녹화 및 야외 환경학습장 조성계획 확정
- 2008년 5월 어린이날 정식 개관 예정

4. 건립 현황

1) 개요

- 위 치 : 여수시 문수동 169번지(여문공원 내)
- 부지면적 : 5,000㎡(공원전체 22,387㎡)
- 지역지구 : 근린공원
- 적 용 율 :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20%
- 기 타 : 현 파고라시설 등 공원, 일부 테니스장 사용 중
- 사 업 비 : 33억원(국비 6,6 시비 19,4 기탁금 7)

2) 건축규모

- 연 면 적 : 1,984㎡(600평) → 5%이내에서 증·감 가능
- 층 수 : 3개 층 이하
- 주요시설

층 별	시 설 명	면 적 (평)	좌 석 수 (석)	세 부 내 용
제한없음	어린이실	80	-	어린이자료 소장, 대출열람, 영유아실, 책읽기방, 멀티미디어실 등
	강의실	30	-	문화강좌, 회의 등 다목적 기능
	사무공간	30	-	사무공간, 도서정리, 전산실
	문화활동실	60	-	세미나, 영화상영, 강연회 등
	환경학습관	120	-	환경에 관한 탐구, 학습, 전시
	환경자료실	80	-	환경관련 자료소장, 대출열람 멀티미디어실, 간행물 등
	열람실	80	170	일반 열람실

	보존서고	50	-	집적서고
	기계실	40	-	냉난방 기계시설
	휴게실	30		층 마다 분할 배치

- 부대시설 : 조경 및 녹지, 야외 휴게공간, 주차장 등

3) 설계기본 지침

① 환경적 측면

- 본 현상설계는 환경을 테마로 하는 목적 도서관으로써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건물의 배치, 옥외공간의 조성은 주변 지역의 환경과 최대한 조화롭게 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② 기능적 측면

- 도서관은 우리시민의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는 장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종 기능, 시설, 설비가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계획한다.
-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 반영 한다.
- 제출된 설계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차장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여수시건축조례,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여수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설계지침

실 별	참 고 사 항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출입구는 출입자 통제가 용이하도록 동선 계획 ▶ 이용자 편리성 추구 ▶ 건물로서의 예술성과 효율성, 환경 이미지 설계 ▶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의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 ▶ 벽체를 줄이고 투시화를 위한 트인 공간 (one hall) 구현 ▶ 주변녹지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주인의 쉼터로 설계 ▶ 출입문 없는 안전한 화장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실, 컴퓨터교육실 등은 통신 및 전기배관관리를 위해 약세스프로아 설계 ▶ 건축물의 외형미를 위한 층별 면적 차별화 ▶ 로비, 시청각실, 문헌실은 고를 높여 행사 및 자료 보존 시 답답함 해결
주현관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보관,전화코너,전시공간,야간반입구등 설계 ▶ 로비는 사랑방 개념의 휴게공간 계획 ▶ 이용자 편리성 최대한 추구 ▶ 직원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최소직원으로 관리가 용이도록 설계 ▶ 도서관 환경에 맞는 바닥 재료, 벽체 색상 고려
어린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주부가 공용으로 이용토록 설계 ▶ 소음확산 방지, 바닥재 부드러운 재질 사용 ▶ 일반자료와 영유아실, 책읽기방, 멀티미디어 공간분리 ▶ 자료공간과 열람공간으로써 채광 유의 ▶ 어린이에게 친근감 있는 재료 및 색상 선택 ▶ 모든 시설은 안전을 위한 설계(손보호 방지용 강화유리 도어 등)
문예 활동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의 용도를 가진 공간으로서 음향, 영사를 위한 스크린, 스피커, 조명, 음향 준비실 설계 ▶ 흡음 및 방음장치 ▶ 소규모 준비실 및 창고 설계 ▶ 고정 경사식 의자 설치 (영화, 음악 감상, 동화 구연, 특별강연 등) ▶ 바닥 재료는 부드러운 질감의 것 ▶ 출입문은 방음문으로 설계
환경학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 환경에 관한 탐구, 학습, 전시로 테마학습 공간이 되도록 설계 ▶ 환경을 소재로 한 인테리어 ▶ 자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 환경 전시 인테리어
환경자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학습관과 수직적 또는 수평적 동선을 갖도록 하여 연계되도록 설계 ▶ 장서증가에 대비하는 공간 확보 및 가변성 공간 계획 ▶ 일반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분리
일반열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실의 벽체는 유리창으로 설계 ▶ 바닥재는 청소 등 관리측면을 고려하여 내구성재료 선택
보존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분의 층고사이 활용 가능 ▶ 자료실과 연계토록, 최소한의 채광, 온도습도 조절 가능
휴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페테리아 시설 필요 ▶ 소음이 열람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 화장실과의 동선을 짧게
공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장소 및 방음시설 설치
강의실 (다목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실로 분리 가능하도록 구조 ▶ 강좌 회의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사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성격상 각개의 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설계 ▶ 사무공간 내에 도서자료 정리 공간 분리 가능토록 ▶ 전산실을 사무공간 내에 설치(향문, 흡습시설) ▶ 자료실과 연결되어 동선 최소화

5) 배치계획

- 부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부지 전체에 대한 계획(MASTER PLAN)을 실시하여 공공시설로서 공간제공 및 주변 여건과 최대한 조화롭게 배치 계획을 한다.
- 대지범위 내에서 건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의 구성, 이용자의 동선처리, 건물 출입구 부분, 차량의 순환 및 동선의 처리 등을 확정하고 이러한 공간이 이용자와 관리의 측면에서 보다 기능적이고 편안하며 아름답게 되도록 계획의 기본사항을 구체화한다.
- 도서관의 장래 증축을 고려한 건물배치와 구조, 피난, 설비, 전기 등의 증축에 대비한 융통성 있는 배치계획을 하고 주차장은 관계법규에 의거 수요대수를 선정하되 장래수요에 대비 최대한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노력한다.
- 21세기를 지향하는 현대적인 시설과 신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공법을 도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하고 미래 수요증가에 따른 각종 IBS시설 수용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 지형 및 일조, 조망, 풍향 등 대지조건을 확실적인 공간계획을 탈피하고 주변시설의 훼손을 가능한 줄이고 외부진입로 및 공간을 조화 있게 한다.
-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 및 안전에 우선되어야 하며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에는 보행자 및 장애자 우선으로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보행자 동선 외에 장애자를 위한 램프 등을 고려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부지 내 진입로 및 보도, 녹지 등 교차점 각각부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각각전체는 관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평면계획

- 자료실 창문은 자료유출, 안전사고, 해충접근방지, 통풍 등을 고려 방범창, 방충망 설치가 필요하며 미닫이창 설치
- 환경학습관과 환경자료실은 본 도서관의 핵심으로 학습관은 벽체,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 환경전시나 나도록 하고 자료실과 동선이 연계되어 학습효과를 최대화. 자료실은 되도록 벽체를 줄이고 트인 공간(one hall) 이 되도록 설계하여 적은 인원으로도 관리 가능하도록 투시공간화 필요
- 평생교육·문화발전기능을 고려한 문화공간(강의실) 확보, 도서관 설계는 다기능성을 염두에 둬야 좋다. 강의실을 마련하여 연중 문화교실을 운영할 장소를 확보하고 문예활동실을 두어 각종 영화나 공연, 세미나, 토론회, 문학회, 독서회 등을 운

영계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의 문화의 장이 되도록 설계

- 도서관은 인구증가나 장서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성장한다. 성장에 따라 시설을 재배치하고 증축 내지는 확충을 전제하며 실내 공간도 가변 벽이나 파티션 등으로 적절히 조절 가능토록 해야 함
- 도서관은 하나의 도시와 사회 내의 중요한 인문 경관으로 아름다움을 도외시할 수 없다. 건축물의 외형과 실내장식, 예술적 설계, 자연 경관과의 융합 등도 고려
- 단순열람실(공부방)을 없애고 있는 추세이나, 자료가 불충분한 현 시점에서는 일반열람실이 필요한 만큼 몇 개의 구획으로 구분하여 필요시 일정 공간(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 확보 : 완공 후 장애인 시설을 별도로 하는 일 없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중요한 시설 설비로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층간이동시설, 점자블럭, 화장실 설치 및 안내판 등
- 옥외 휴게공간을 활용하여 여름철, 우기를 고려한 테라스 시설 (편안하게 쉬고 싶은 시설로) 설계
- 관리상의 효율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 편안함을 고려하여 각종의 용도와 시설의 규모를 확정하고 벽체의 재질 및 두께 등 기본적인 재료를 정한다.
-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 실내 마감은 밝고 차분한 분위기가 되도록 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학습능력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건물 청소를 위한 청소도구 및 청소걸레 세척 할 수 있는 청소 창고 및 마포걸레 세탁조 설치(각층 화장실 옆 설치)

7) 입면계획

- 여수시의 이미지와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대적 이미지 및 독자적인 외관을 구성하고 기존 도서관의 입면계획을 탈피 환경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독특한 계획을 한다.
- 여수시민에게 친밀감을 주며 이용자들에게 개방적인 입면계획을 한다.
-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계획으로 균형미가 있도록 하고 통일감을 확보한다.
- 외장재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감과 질감을 선택하되 가급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고 이질감이 없도록 색채 계획한다.

8) 옥상녹화 및 야외 체험학습장

- 옥상에 자연 정원을 조성하고 풍력발전시를 상징적으로 설치하여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한다.
- 환경도서관이 위치한 여문공원을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다.

5. 평가와 과제

- 여수환경도서관은 환경안전사고가 발단이 되기는 했으나 여수시민들에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수 산단의 입주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부, 계획수립, 설계 등 전체 과정에 시민환경단체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 여수환경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과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시민들에게 시험공부나 하는 독서실정도로 인식되어져 오던 도서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도심 속 환경교육센터의 형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사회적기부를 통해 시작되고 시민환경단체가 전체 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실질적 추진주체인 행정기관(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고 건물 설계, 공간배치, 환경교육 전시물 및 프로그램 등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여수시를 견인하고자 하였으나 여수시의 거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 관련 시민단체의 위탁운영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수시의 거부로 공무원들에 의해 운영되게 되어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 개관 후라도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하며 추후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리는 「충북환경교육센터」, 그 후

김경중_충북환경운동연합

1. 배경

1990년 중반부터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 무분별한 먹는 샘물 개발 억제, 댐 건설 반대 및 물 관리제도 개선, 백두대간 보전운동, 충청북도의 밀레니엄타운 개발 재검토 운동을 펼치면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근본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환경캠프,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기행, 민방위 교육장 및 각종 단체에서의 강연 등을 통해 외연을 넓혀왔지만,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2002년 충북환경운동연합 부설의 충북환경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2. 방향

생활양식을 바꾸는 환경교육에 있어 환경문제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나온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단체가 풀어나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성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릴 적부터 자연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준비, 추진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그리고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선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교육 기회의 균등에 있어 미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효과는 야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환경문제와 자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충북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좀 더 쉽게 많은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